

기적은 없었다... 전북, ACL2 8강 탈락

시드니FC와 원정 경서 2-3으로 패배... 합계 점수 2-5로 시드니에 밀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시드니FC(호주)를 넘지 못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2) 8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북은 13일 오후 5시(한국 시간) 호주 시드니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드니와의 2024~2025시즌 ACL2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전북은 합계 점수 2-5(0-2 패·2-3 패)로 시드니에 밀려 탈락했다.

지난 1차전 거스 포터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잔디 문제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시드니를 상대했다.

콤포노, 송민규, 이영재, 박진섭 등이 선발로, 보아텡, 이승우 등이 교체로 출격했지만 침묵 끝에 영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전북은 이번 2차전에서 세 골 차이로 승리를 거둬야 준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

전반전 전진우의 멀티골로 합계 점수 균형을 맞추는 것까지 좋았다.

하지만 후반전 연속 실점을 내준 끝에 결국 시드니에 밀려 탈락하고 말았다.

전북이 이른 시간 아찔한 위기에 직면했다.

전반 7분 파트리크 클리말라가 룽볼을 살린 뒤 슈팅해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였다.

한숨 돌린 전북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35분 김진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를 제친 뒤 컷백을 연결했다. 전진우가 오른발로 강력하게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물꼬를 튼 전진우가 멀티골까지 터뜨렸다.

전반 48분 전북 코너킥 상황 보아텡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다. 문전에 있던 전진우가 재차 슈팅해 합계 점수의 균형을 맞추는 골을 기록했다.

후반전에 돌입한 전북은 안현범, 시드니는 세게치치, 홀만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시드니가 전북에 찬물을 끼얹었다.

후반 4분 프리킥 찬스에서 알렉스 그랜트가 리안 그랜트가 내준 볼을 슈팅해 득점했다.

후반 26분 앞서 오프사이드로 득점을 놓쳤던 클리말라도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전북은 합계 점수 2-4로 끌려가자 급속도로 무너졌다.

후반 34분 보아텡이 상대 공격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내줬다. 키커로 나선 더글라스 코스타가 오른쪽 하단을 노린 슈팅으로 썩기골을 넣었다.

결국 전북은 시드니에 2-3으로 패배했고, 합계 점수에서 2-5로 밀려 탈락했다. /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시드니FC(호주)와의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2) 8강서 합계 점수 2-5로 탈락했다. <사진=AFC 홈페이지 캡처>

김제시청 태권도팀, 올해도 출발 좋다

채지은,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女 62kg급 3위 입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 여자 62kg급에 출전한 김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채지은 선수가 3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전은 2024년 파리하계 올림픽대회 참가자 등 각 체급별 상위 랭커들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다.

채지은 선수는 경희대 출신으로 올해 김제시청에서 우수선수로 인재 영입했으며 대학 시절부터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채 선수는 올해 첫 대회인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먼저 좋은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채지은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김제시청 태권도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거라 믿고 앞으로도 우리 태권도 선수들의 노력에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권도 학생 선수들, 전주대로 집결

5월 1~6일 '제3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5월 1~6일 제3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주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가 정주형 태권도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3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0여 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대회로 격파와 품새 부문에서 입상자는 전국 특례 입학 및 국가대표 선발권을 주는 권위 있는 대회다.

박진배 총장은 "최근 2036년 하계올림픽 도시 선정이 스포츠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혁신성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 지역 대표 콘텐츠인 태

권도가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정주형 태권도 문화산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권도학과 이숙경 학과장은 "지역과 연계해 태권도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북형 태권도대회를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2024년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북의 문화와 전통을 태권도에 담아 전 세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홍보해왔다.

올해는 '2036 올림픽은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올림픽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관련 직업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 희망 학교·기관 모집... 참가비 무료

강사 지원형·방문형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

‘교육기부 우수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 기관의 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강사 지원형’과 ‘방문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강사 지원형’은 선정된 학교 및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이고 ‘방문형’은 참가자들이 태권도원으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10% 증가한 전국 22개 학교 또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평가 항목에 태권도와 관련한 진로 교육과 체험이 어려운 지역을 반영하며 두메산골, 낙도에 위치한 학교, 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초등학교와 경기도 연천군 백학중학교, 제주 덕수초등학교, 인천 영흥초등학교, 광주 진부중학교 등 전국 20개 학교와 기관에서 연인원 5,328명이 참가했다.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들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태권도와 관련한 직업군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이 정말 재미있고 좋았다. 총 3차시의 수업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가하는 모습을 보며 신명하기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2024년 진로탐색 활동 협력분야 유공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전국 22개 학교, 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국가 태권도 발전, 보급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꿈길’ 누리집과 ‘태권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신청은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tpf_ggroomg@tpf.or.kr)로 발송하면 된다. /무우=전문선 기자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경남 고성 전국대회서 銅 2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 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정민 선수는 남자 일반부 81kg급 용상 부문에서 182kg을 들어 올려 동메달을 차지했으며,



김정민



김요한

며, 김요한 선수도 남자 일반부 67kg급 용상 부문에서 163kg을 들어 올리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전국 대회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군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